

# 장마철 재난 대응 안전관리 총력 지속 가능한 사매면 만든다

## 임실군, 인명피해 우려지역 3대 유형별 관리·신속한 대피체계 운영키로

임실군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찰과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등 선제적 재난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이 빈번해짐에 따라 임실군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태세를 빈틈없이 갖췄다.

우선 부근수를 중심으로 한 상황관리 및 직보체계를 구축해 재난발생 시 상황전파와 초동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발생원인에 따라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위험에 따른 정량적 대피 기준을 마련해 기준도달 시 읍면장이 즉시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대피 설명회와 주민대피 지원단 교육을 실시했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인근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주민대피 지원단과 1대1로 연계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재난안전대책



임실군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찰과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등 선제적 재난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즉시 가동해 협업부서 10개부서와 12개읍면 등 총 43명의 공무원을 비상배치하고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장마철에 대비한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도 마쳤다.

임실군은 경찰서와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침수 취약구간, 배수 펌프장, 우수 저류시설 등 주요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관리 상태와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응도 강화했다. 산림재난대응단과 숲가꾸기 패트롤을 중심으로 낙석과 붕괴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위

험정후 발견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와 비상 대응 시스템도 재정비했다.

이외에, 군민들이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집중호우 시 주민 행동요령과 대피방법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이라며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중심의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 남원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공모 선정

남원시(시장 양충모)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별공모에서 사매면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20억원(국비 14억, 지방비 6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8개 지자체가 참여하였고,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검토 및 대면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매면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 매화언덕신축, 북작활동관 리모델링, 혼불문화거리 조성 등 기초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교육을 통해 지역 공동체 및 인적자원을 양성했다.

이번에 선정된 2단계 사업 초기에는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 및 생활서비스 전달인력을 양성하여 이후 2031년까지 배후마을 대상 찾아가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매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사전 기술검토 보고서 승인

남원시가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기후부의 사전 기술검토 보고서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개도에 올랐다.

남원시는 2029년까지 월라·남원 배수지권을 중심으로 노후 상수관로 20km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시 전역 급수구역에 대하여 블록 구축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인 관망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도통동 동다사거리 일대의 노후 상수관로를 대상으로 우선 정비에 착수한 상태로,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월라·남원 배수지

권의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다만 공사 구간 일부가 주거지와 상가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만큼 도로 굴착에 따른 일시적인 교통 및 생활 불편이 예상되며, 이에 남원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공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시는 단계별 사업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상수도 점검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도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진료 개시

임실군보건의료원(원장 김대곤)은 6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개시한다.

이번 진료개시를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 소아 예방접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아 전문 분야에 대한 진료를 통해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대곤 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진료개시를 통해 지역 아이들의 건강을 더욱 가까이에서 살피고, 보호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일은 월요일과 목요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640-3336)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전홍영 기자

###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대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순창군은 지난 3일 행복누리센터에서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경력단절여성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를 위해 관내 22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 일자리 확대와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기업 인사담당자 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씨엔티(주) 순창공장, 농업회사법인 한국결림 주식회사, 토당식품영농조합법인 등 관내 22개 기업의 대표와 인사담당자 25명이 참석했다. 여성 취업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이어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순창군은 2007년부터 순창군 여성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며 구인·구직 상담, 맞춤형 취업 연계, 경력단절여성 취업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제10대 남원시의회 개원

### 전반기 의장에 한명숙 의원 부의장에 소태수 의원 선출

남원시의회는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4선 한명숙 의원, 부의장에 재선 소태수 의원 선출하고,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완료하며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한명숙 의원은 남원시의회 역사가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한 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로 뛰는 민생 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4선 의원인 한 의원은 자원순환 등 생활밀착형 입법과 유연한 리더십으



한명숙 의장 소태수 부의장

로 소통 의정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소태수 신임 부의장은 "의장단 및 동료 의원들과 합심해 민의를 대변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장단 선출을 마친 의원들은 만민이총을 참배하며 만민이사의 충절과 애민정신을 가슴에 새겨 더 나은

남원을 만들 것임을 다졌다.

이어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는 내·외빈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이 진행, 의원 전원은 선서문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과 성실한 직무 수행을 엄숙히 선서했으며, 소태수 부의장 대표로 청렴과 품위 유지를 골자로 한 의원 윤리강령을 다짐했다.

한명숙 의장은 개원사에서 "제10대 의회는 '정쟁보다 정책, 대립보다 소통, 형식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제2경향학교 유치와 국립의전원 설립 등 지역 현안은 시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해결하고, 민선9기 남원시가 추구하는 경제도시 남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되 윈윈 있는 경제로 예산과 사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제10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2028년 6월까지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제21회 순창장류축제 먹거리부스 참가업체 모집

순창군과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가 오는 10월 열리는 제21회 순창장류축제를 앞두고 먹거리부스를 운영할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비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순창장류축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미식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축제 먹거리부스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순창전통도축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운영되며, K-푸드와 세계음식, 향토음식 등 28개 안팎의 부스를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순창 정맞한살과 정맞백반, K-분식, 정류를 활용한 디저트 등 K-푸드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대



포 음식, 순창삼합과 순대국밥 등 향토음식, 휴게음식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